

CINE PORT

기획: 박미정

방송: 2012년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11:00~

녹화: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1:00~

진행: 권해효, 류시현

구성: 천다혜

연출: 임혁규

2012년 10월 13일 토요일 《씨네포트》 아이템 선정

20110908 천다혜

1. 콜라, 팝콘, 그리고 커플석

-콜라무비

《비정한도시》(한국) 스릴러, 미스터리 2012.10.25 개봉/ 김석훈, 조성하, 서영희, 이기영

-팝콘무비

《바비》(한국) 드라마 2012.10.25 개봉/ 이천희, 김새론, 김아론

-커플석무비

《댄소브드래곤》(한국) 2012.10.18 개봉/ 장혁, 제이슨 스콧 리, 범문방

2. 슬기로운 영화통신

-광주의 비극과 연관된 사람들이 펼치는 극비 프로젝트를 그린 영화

<26년> 촬영현장!

-화제의 다음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

10월 17일 크랭크인 확정!

-김재중, 송지효 주연의 <자칼이온다> 포스터 촬영현장

3. 다2다이

-<루퍼> vs <닌자보이란타로 : 삼총사의 대모험 6> 킬러 vs 닌자

10/11 10/11

4. 신작의 계보

- <로우리스: 나쁜 영웅들> 10/4

전설의 갱스터 <대부1,2,3>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언터처블>

5. @씨네포트

-<점쟁이들> <테이큰2>

10/3 9/27

TITLE

전CM

오프닝

- 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영화세상 씨네포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개최된 제 17회 부산국제 영화제가
오늘 저녁 폐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 류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10월 7일 일요일, 1300만 관객의 마음을 훔친 영화죠~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과 배우들이 해운대 비프빌리지를 찾았는데요.
관객들에게 1300만 돌파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 오 네, '도둑들'은 2006년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세운 기록을 넘어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이 되었는데요.
괴물이 1300만을 돌파하는데 106일이 걸린데 비해
도둑들은 70일만에 최고 흥행작에 올랐습니다.
- 류 또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000만을 향한 뒤편박질을 하고있죠~
도둑들에 이어 올 하반기 두 번째 1000만 관객을 돌파 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 오 네, 계속되는 흥행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열리는 폐막식은
배우 이제훈과 방은진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구요.
모스타파 파루키 감독의 영화,
<텔레비전>의 상영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텔레비전>은 뉴 방글라데시 시네마의 등장을 알리는 풍자영화로
현대문명이 스며들면서, 열광하는 신세대와
거부하는 구세대가 충돌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그려냈습니다.

류 10일 간의 영화축제가 오늘 저녁 7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 네, 많이 지켜봐주시구요.
저희는 새롭게 개봉하는 재밌는 영화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씨네포트 콜라, 팝콘, 그리고 커플석 출발합니다~

VCR 완품 : (Na.) 콜라, 팝콘, 그리고 커플석

-Sub-title

-<비정한도시>

-<바비>

-<댄스오브드래곤>

N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우.

대우의 숨통을 쥐고있는 사채업자 변사채.

늦은 새벽,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 일호,
대우는 사고를 목격하게 되고 일호를 협박한다.

대우의 협박에 시달린 일호는 변사채의 아내를 납치하게 되고...

돈이 필요한 남자와 자신의 죄를 숨기려하는 남자
그리고 아내를 살리려는 남자!

그들의 충격적인 연쇄범죄!
누구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심장을 강하게 자극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콜라 무비 <비정한도시>!

N 바비 인형이 되고싶은 순자.
정신지체 장애인 아버지와 철없는 삼촌.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린 순영.
순영은 삼촌에 의해 미국으로 입양당하게 되고...
밝혀지는 입양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뒤바껴버린 두 자매의 잔혹한 운명이 지금 밝혀진다.

제 42회 이탈리아 지포니국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제 16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 최고의 화제작!
팝콘 무비 <바비>!

N 배우 장혁의 첫 해외 진출.
한국과 싱가포르의 합작 영화!

사교댄서를 꿈꾸는 한국인 청년 태산.
꿈을 이루기 위해 싱가포르의 유명댄스스쿨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태산을 향한 무시와 냉대.
하지만 그를 인정하는 한명의 여인이 있다.

그녀와 함께 댄스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태산.
과연 그는 우승과 함께 그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꿈을 위해 도전하는 젊은 청년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
커플석 무비 <댄스오브드래곤>!

**VCR 완품 :(R.최슬기/스튜디오)
슬기로운 영화통신**

최 생생한 영화 촬영 현장, 궁금한 영화 속 이야기,
파헤치고 싶은 영화 뒷담화까지 모두 모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화통신 최슬기입니다.

‘그사람’을 단죄하라! <26년> 촬영현장!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웹툰 작가죠~
강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26년>의 촬영현장을 찾아가보았습니다.
<26년>은 투자부터 시작해 제작과정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영화의 제작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촬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영화, <26년> 함께 보시죠.

<26년>은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 이후,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때의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이 펼치는
극비 프로젝트를 그린 영화인데요,
국가대표 사격선수, 현직 경찰, 광주 건달이
2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경호업체 회장에 의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들은
모두 26년전, 광주민주화운동의 보이지 않는 피해자였죠.
그들은 잊고 살았던 그 날의 비극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극비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국가대표 사격선수 역할을 맡은 한혜진씨!
도로 한가운데 서서 다가오는 차를 향해
총을 겨누는 모습이 비장해보이는데요.

Q. 지금 무슨 장면을 촬영 중인가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신호등을 조작하는 임슬옹씨의 굳은 표정에
그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던 친구씨의 표정도 사뭇 진지해지네요.
촬영이 끝나고 진지하게 모니터링하는 임슬옹씨,

Q. 이 역할을 맡게된 계기가 있다면?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스크린에 뛰어든 그의 도전이 아름답습니다.
무더위 속, 계속 되는 촬영에 지친 스텝들과 배우들에게
꿀맛 같은 휴식이 찾아옵니다.
쉬는 시간에도 대본을 보며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한혜진씨!
그녀의 노력이 영화에 잘 담겨있을지 기대되네요.

영화 <26년>은 지난 10월 11일 마지막 촬영을 끝마쳤는데요,
11월 29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제의 다음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10월 17일 크랭크인!

최 다음은 앞서 소개해드린 소식에 이어,
웹툰을 즐겨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싶네요~
인기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분단된 현실 속,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인 원류환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담긴 따뜻한 정서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동네 바보 인척 생활을 하는데요~
이 배역에 요즘 최고의 인기배우죠,
김수현씨가 캐스팅되어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화 속 원류환의 모습과 닮았네요~
김수현씨의 귀엽고 유쾌한 모습과 카리스마 있고 진지한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어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원류환의 라이벌이자 친구인 리해랑 역에는 배우 박기웅,
리해진 역에는 배우 이현우가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영화<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을 연출한
장철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4개월간의 촬영 후,
2013년에 관객들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재중, 송지호 주연의 <자칼이온다> 포스터 촬영현장

최 마지막 보내드릴 소식은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배우죠, 송지호씨와
이번 작품으로 처음 스크린에 데뷔하는
가수 김재중씨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입니다.
영화 <자칼이 온다>의 포스터 촬영현장을 찾아가보았습니다.

여자 킬러가 뒀습니다. 권총을 들고 나타난 송지호!
마치 레옹의 수제자가 나타난 듯 치밀하고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그녀의 레이더망에 걸린 한 남자!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김재중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극중 최고의 한류스타 최현 역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본인도 한류스타니, 어렵진 않았겠죠~?
촬영장에 모습을 나타낸 그는 온 몸이 뭉뚱 묶여있는데요~
킬러에게 납치당한 모습이 컨셉이기 때문에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계속 묶여서 촬영을 했다고합니다.
보기만해도 정말 아파보이죠?

이어서 명품 조연, 오달수씨의 포스터촬영인데요.
이번에는 킬러 봉민정을 잡을 형사반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킬러를 눈 앞에 두고도 한 눈을 파는 변태 시골형사 역할인데요.
머리에 꽂은 선글라스가 인상적이죠!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포즈를 뽐내는 한상진씨!
용통성 제로의 FBI출신 특수요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달수씨와 코믹한 콤비연기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미남 스타의 스폰서 역을 맡은 김성령씨!
머리를 넘기며 취하는 매혹적인 포즈가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네요.
배우들은 서로 칭찬도 해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계속되었습니다.

톱스타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여자 킬러 봉민정과
그에 대항하지만 어딘가 허술한 한류스타 최현의 만남!
킬러와 톱스타라는 이색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는
11월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 슬기로운 영화통신,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구요.
잠시 후 신작의 계보 시간에는 할리우드의 연기파 배우들이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베인'역으로 주목 받은 배우 톰하디와
<트랜스포머>의 주인공 샤이아 라보프,
그리고 명품배우 게리 올드만이 열연을 펼친
할리우드판 <범죄와의 전쟁>!
갱스터액션의 계보를 잇는<로우리스:나쁜영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바랍니다~
슬기로운 영화통신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VCR 완품 :(Na.) 다2다이

-<루퍼> VS <닌자보이란타로: 삼총사의 대모험 6>

N 지금 내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
나로 인해 미래가 결정된다!
나 자신과의 싸움.
두 명의 킬러가 격돌한다.
시간암살자
영화 <루퍼>!

닌자보이 삼총사가 돌아왔다!
독버섯 악당에게 빼앗긴 전설의 비서를 찾아라!
용기와 의리로 뚝뚝뭉친 세명의 닌자.
그들의 모험이 시작된다!
<닌자보이 란타로: 삼총사의 대모험>!

다른영화 다른이야기 다2다이!
지금 시작합니다!

-----VCR멘트 끝, S/T

류 개봉영화 두편을 선정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다른 두 영화 다른 이야기, 다2다이!
오늘은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한 방의 사나이, 킬러와
그에 맞서는 민첩함의 상징, 닌자의 대결인데요.

권 네, 오늘 두 편의 영화는
브루스 윌리스와 조셉고든레빗의 2인 1역! <루퍼>와
엘리트 닌자, 란타로와 그의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죠.
<닌자보이란타로 : 삼총사의 대모험> 입니다!

오 네, 할리우드 명품배우 두명의 2인 1역이 돋보이는 <루퍼>는
시간적 배경이 2074년과 2044년을 오가고 있는데요.
두 배우는 30년이라는 시간 사이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는 <터미네이터>를 시작으로
<백 투더 퓨처>, <맨 인 블랙>, <나비효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져 왔는데요.
<루퍼>는 어떤 시간여행 스토리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류 네, 그렇다면 오늘의 다2다이, <루퍼>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VCR 완품: (Na.) 다2다이

-<루퍼>

N 암흑의 도시로 변해버린 2044년의 캔사스.
시간여행이 가능해지는데...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만났다.
현재의 조와 미래의 조, 두 사람의 치열한 눈싸움이 펼쳐지고...
2044년의 조는 2074년의 암흑조직과 일하는 루퍼라 불리는 킬러!

조는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30년후, 2074년의 나를 만나게 된다.
미래의 나는 왜 2044년으로 왔는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 현재에 온 미래의 조!
현재를 살기 위해 미래의 조를 제거해야하는 현재의 조!
두 남자가 충돌한다!

-----VCR멘트 끝, S/T

류 와 , 할리우드가 주목하는 배우죠,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조셉 고든 레빗과
전 세계가 사랑하는 다이하드 액션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만났네요.

권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보여준 명연기에 이어,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조셉 고든 레빗의 액션연기가 돋보이는데요~
브루스 윌리스의 액션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이 명불허전입니다.

오 네, 두 명이 한 사람을 연기한다는 것이 관심을 끄네요.
킬러라는 흔한 소재에 시간여행이라는 소스를 더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구요,
까다로운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를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류 네, 영화이야기를 해보자면,
2044년을 살고 있는 조는 루퍼라고 불리는 시간 암살자구요,
2074년의 미래의 조는 죽임을 당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
2044년의 조에게 찾아오고,
두 남자가 격돌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오 2074년의 캔사스는 태깅기술의 발달로 살인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암흑조직은
자신들의 타켓을 타임머신으로 2044년으로 보냅니다.
임무를 받은 조는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 류 우리에게 시간여행이라는 환상을 만들어준 타임머신이 <루퍼>에서는 무시무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네요...
- 오 현재의 조는 임무를 완수하면 작은 은괴만을 보수로 받지만 일생에 한번, 보수로 금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바로 30년 후의 자기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 류 내가 나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라니,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 권 그런데 망설임 없이 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하하하
- 오 한적한 카페에 마주 앉아 눈싸움을 하는 장면에서, 서로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 권 두 배우의 카리스마가 대단하네요~
두 사람이 격돌하는 모습, 스크린에서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 류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아이러니, 시간암살자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SF영화 <루퍼> 어떠신가요?
- 권 저희는 오늘 킬러 대 닌자, 킬러의 이야기와 닌자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만나보신 <루퍼>가 킬러라면, 닌자는 어떨지 만나보겠습니다.

VCR 완품: (Na.) 다2다이

-<닌자보이란타로: 삼총사의 대모험 6>

- N 일본의 인기 TV 애니메이션 , 닌자보이 란타로!
새로운 내용의 극장판으로 다시 돌아왔다!
- 지난 여름, 닌자학교에 벌어진 방학숙제 대소동을 해결한 란타로!

이번에는 악당 독버섯 닌자와 맞붙게 된다.
엘리트 닌자가 되기 위한 란타로의 험난한 모험!
하지만 친구들이 있기에 무섭지않다~
란타로, 키마루, 신베의 좌충우돌 여행기가 시작된다!

-----VCR멘트 끝, S/T

- 류 두 번째 영화는 일본의 자객이죠, 닌자의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만한 영화네요~
- 권 닌자보이 란타로는 일본 대표 방송국이죠,
NHK에서 1999년 처음 방영되어
한국에서도 많은 시리즈로 방송되어왔습니다.
- 오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어린아이 뿐만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고있죠~
<도라에몽>과 <짱구는 못말려>도 극장판으로 많이 상영이 됐는데요.
- 류 네, 이 영화는 90년대에 처음 방영해서 그런지
일본의 옛날 그림체가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 권 지금 잠깐보니 어린 닌자들의 엉뚱한 모습이나
악당들의 허당스러운 모습이 정말 웃긴데요,
남녀노소 가볍게 볼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 류 네, 닌자보이 란타로와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액션 코미디 어드벤처!
올 가을, 아이들을 위한 극장 나들이 어떠신가요?
<닌자보이 란타로: 삼총사의 대모험> 이었습니다.
- N 과연 어떤 영화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다2다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권 자, 이번 순서는 새로나온 영화를 선정하여
그 영화의 뿌리를 찾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신작의 계보, 시작하겠습니다!

류 오늘 저희가 밀도있게 파헤쳐볼 영화는요.
밀주 사업을 하던 악명 높은 세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웨티스트 카운티>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샤이아 라보프, 톰하디, 게리 올드만, 가이 피어스 주연의
<로우리스: 나쁜영웅들>입니다.

오 네, 무법 천지의 1930년대,
악당 경찰과 갱스터 형제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무자비한 전쟁,
<로우리스: 나쁜영웅들>을 선두로
갱스터 영화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신작의 계보 지금 출발합니다.

VCR 완품: 신작의 계보 (M.오동진)

- <로우리스: 나쁜 녀석들>
- <대부1,2,3>
- <원스어폰어타임 인 아메리카>
- <엔터처블>

오 1931년 금주령이 내려진 미국의 프랭클린 카운티,
그 곳의 전설 본두란가 삼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는 밀주 사업을 통해 이름을 떨치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마을에 수사관이 들이닥칩니다.
바로 새로 부임한 특별 수사관 찰리입니다.
찰리는 금주법을 빌미로
거액의 상납금을 요구하며 형제들을 위협합니다.
밀주 사업에 위협을 받게된 삼형제는 고민에 빠집니다.
굴복하느냐 맞서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삼형제는 결국 전설의 갱스터 '플로이드 배너' 와 손을 잡게 됩니다.

지독한 삼형제, 전설의 갱스터와 부패한 수사관의
피튀기는 무자비한 싸움. <로우리스: 나쁜영웅들>입니다.
오늘 이 영화를 통해 갱스터 영화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볼 텐데요.
갱스터 영화 계의 최고의 걸작, <대부>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언터처블> 을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갱스터 영화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꼽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 알 파치노, 말론 브란도, 제임스 칸 주연의 영화,
<대부>입니다. 두 편의 후속작을 만들어내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최고의 걸작이죠.
기존의 갱 영화가 범죄자의 측면에서 잔인하고 흑독하게 그려졌다면
<대부>는 그들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죠.
갱조직 안에서 '돈 코르네오네'는
권위적이고 카리스마있는 1인자 이지만
일상 속에서 그는, 가족들을 위해
식료품점에 들러 장을 보는 자상한 가장일 뿐입니다.

이렇게 갱스터를 인간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미화에 가깝게 묘사하게 된 것은 이후 갱스터영화의 한 문법이 되었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대부를 이은 갱스터계의 걸작입니다.
대공황과 금주법 시대를 배경으로
범죄 세계에서 자라난 젊은 유태계 소년들의 우정과 삶,
욕망과 좌절, 음모와 배신을 갱스터의 이야기 속에 담았습니다.
종래의 갱스터 영화와는 달리,
소년들의 성장기부터 출발하여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언터처블>입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갱단 보스, '알 카포네'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하게 활계를 칩니다.

바로 막대한 돈으로 경찰과 정치인을 매수했기 때문이죠.
 <언터처블>의 부패한 경찰과 <로우리스: 나쁜영웅들>의 악랄한 수사관,
 둘 다 부패한 권력을 상징하고 있죠.
 이렇게 대부분의 갱스터 영화들은
 정치, 사상, 의식이 타락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암흑 무리,
 그들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절대적 카리스마 갱스터의 화려한 액션과
 그들의 인간미를 엿보고 싶다면, 갱스터 영화 한편, 어떠신가요?

VCR 완품: @씨네포트

- <박스오피스 : ‘광해, 왕이 된 남자’ 의 무서운 독주>
- <코믹 호러물의 계보를 잇는다! 점쟁이들>
-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테이큰2>

최 안녕하세요~ 씨네포트 소셜 메신저 최윤영입니다.

개봉 2주만에 320만을 돌파했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개봉 3주차를 맞이해 주말에만 85만명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820만 여명을 돌파했는데요.

이어 5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는 <광해>는
 곧 10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영화 <도둑들>이 1300만여명을 동원하며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데 이어

올 하반기, 두 번째 한국영화 1000만 돌파라는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세로 쭉 이어 간다면 1000만은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지난주 <점쟁이들>과 <테이큰2>가

박스오피스 순위를 엇치락 뒤치락 오르내리며 박빙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점쟁이들>이 지난 10일 하루 동안 3만 4000여명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71만명으로 <테이큰2>를 밀어내고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주 @씨네포트,
코믹호러의 진수!

<점쟁이들>의 강력한 입소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건축학개론>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이제훈과
코믹 연기의 달인 김수로가 주연을 맡아 10대,20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가볍게 즐길 수 있어 좋은 평을 얻고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기에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신정원 감독의 특유의 유머가 돋보인다!
유쾌하고 코믹한 영화!
이제훈씨 망가지는 모습이 너무 웃기네요.
역시 김수로!
아직도 여운이 남는다.
공포와 코믹의 아름다운 조화다!

마지막 남은 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코믹호러 영화 점쟁이들!

이번 주말, 가족, 친구, 연인들과 가볍게 한 편 어떠세요?

최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입소문은요

4년 만에 돌아온 리암니슨! <테이큰2>입니다.

전작에서 브라이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인신매매범의 가족이
브라이언의 아내와 딸을 다시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액션 블록버스터 작품인데요.

하지만 전 작에 비해 힘이 떨어진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1년은 탄탄한데 2편은 2%부족하다.

전 편에 비해 아쉬움이 남는다.

액션은 있는데 스토리는 글썄? 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역시 리암니슨!

<테이큰1>에서 리암니슨은 감수성 풍부한 맏 데이먼이라면

<테이큰2>는 똑똑한 스티븐 시걸 느낌.

리암니슨의 중후한 매력. 카리스마, 액션, 연기 모두 최고!

전 편에 비해 조금 아쉽다는 평이 나오고 있지만
리암니슨의 매력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다이하드 액션 영화 <테이큰2>!
리암니슨의 스펙타클한 모습 계속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씨네포트 소셜 메신저 최윤영이였고요.
@씨네포트 무한 RT 계속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게요~

클로징

- 오 네, 오늘 퀴즈는 앞서 '다2다이'에서 만나보았는데요.
시간을 여행하는 암살자에 대한 영화,
<루퍼>에 나오는 배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 권 네, 이 배우는
영화 <500일의 썸머>와 <인셉션>에서 이름을 알려
최근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존 블레이크 역을 맡았는데요.
차세대 연기파 배우로
현재 헐리우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 류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로 나온 배우 히스레저와 닮았어요~
- 권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씨네포트 게시판 퀴즈퀴즈 코너에
정답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씨네포트에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류 이번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주 더 재미나고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그림

(로우리스: 나쁜영웅들 MV : 개소리2(Feat. Dok2 - BORN KIM)

스텝스크롤

후CM

다음 이 시간에...